

PA-7

국내 유망 콩 품종의 북한 척박지 적응성 검토

주영환¹, 최주영¹, 권수정¹, 이소은¹, 나은성¹, 정건호², 이재선³, 황태영¹, 우선희^{1*}

¹충북대학교 식물자원학과

²국립식량과학원 고령지농업연구소

³충청북도농업기술원

[서론]

북한은 농경지 황폐화, 작물재배 기술 낙후와 비료, 농약, 농기계 등 농업생산 자재의 부족으로 인해 단위면적당 생산성이 낮아 1990년대 이후 식량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콩은 북한 주민들에게 단백질 섭취의 주 공급원으로 영양강화와 먹거리 다양화를 위해 최근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있다. 더욱이 콩은 간작작물, 토양 질소 함유량을 높여 윤작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북한 정부는 콩 재배를 장려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유망 콩 품종의 북한의 척박지에서 적응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험포장은 국립농업과학원에서 1994년에 발표한 콩 재배적지의 토양화학성과 비교하여 선정한 충북대학교 부속농장 척박지 토양에서 수행하였으며 토양화학성을 분석하였다. 공시재료는 장류 및 두부용 콩 11품종, 나물용 콩 5품종, 단기성 콩 3품종으로 총 19품종을 재식거리 90cm X 15cm에 맞춰 6월 15일에 파종하였다. 1주당 4개체의 종자를 파종한 후 추가 개체를 제거하거나 보식함으로써 최종적으로 1주 2본을 맞춰주었다. 모든 품종은 난괴법 3반복 (10주씩 3반복)으로 하였으며 출아시, 출아기, 개화기, 초장, 경장, 착엽고, 경태 등 생육특성을 조사하였다.

[결과 및 고찰]

출아시 및 출아기는 파종 3~5일 후인 6월 18일과 6월 20일이었다. 개화기는 7월 25일 이전에 개화한 것은 우람, 선유, 풍산나물콩 등 3품종, 7월 26일~31일 사이는 태선, 대풍2호, 대풍, 대찬, 새단백, 진풍, 대원, 태광, 조양1호 해풍, 황금울 등 11품종으로 가장 많이 개화하였고 8월 1~5일 사이에 선풍, 미소, 평원, 은하, 풍원, 두루울, 참울 등 7품종, 8월 6일 이후는 선유2호 1품종이었다. 초장은 평원이 72.4cm로 가장 길었고 진풍이 43.6cm으로 가장 작았으며, 경장은 우람이 59.7cm로 키가 가장 컸으며 진풍이 31.7cm로 가장 작았다. 경태는 미소가 4.3cm으로 가장 굵었고, 태광콩이 2.1cm로 가장 작았다. 잎 병해는 품종간 병해정도의 차이는 상이하였으나 대체적으로 불마름병과 세균성점무늬병에 크게 노출된 것을 확인하였다.

[사서]

본 논문은 농촌진흥청 연구사업(과제번호: PJO162652021)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로 이에 감사드립니다.

*Corresponding author: E-mail, shwoo@chungbuk.ac.kr Tel. +82-43-261-2515